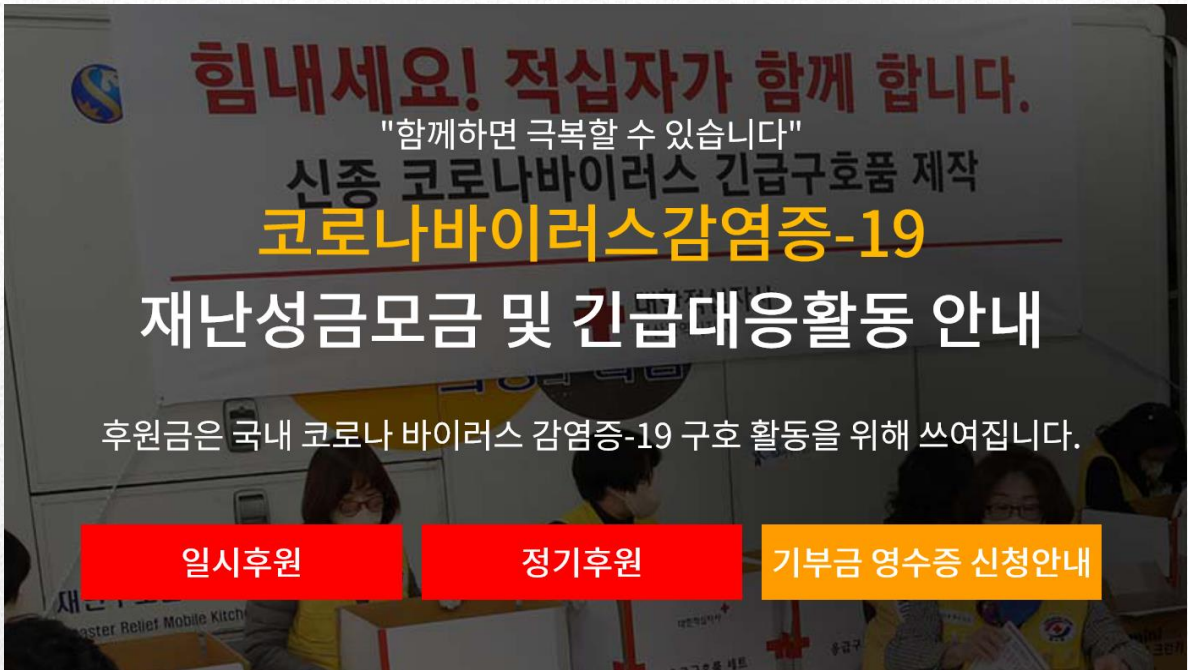


SAMKI는

**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
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?**

**현재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
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
안타까운 마음입니다.**

삼기는 어떻게 이 위기를 고민하고 있을까요?



- 삼기가 기부하고 있는 단체인 대한적십자협회에서 코로나 재난 구호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보탬을 드리고자 임직원들도 참여하여 약 32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.
- 가장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/경북 지역에 꼭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삼기인들의 마음으로 부디 코로나 사태에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.

코로나바이러스 재난 성금



- 삼기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높아지는 상황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 단축 근무로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삼기 직원과 가족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2조로 나뉘어 격일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단축근무/격일제 재택근무



- 삼기는 인원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식당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판단되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점심은 도시락 배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.
- 식사 시 자리는 교차하여 앉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등 최소한의 접촉만 하고 있습니다.

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



- 삼기 내 비상 감염 상황을 대비하여 출근 후/ 점심/ 퇴근 전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(37.5도 안되요ㅠㅠ)
-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며 회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.

마스크 착용/ 체온 확인
